

# 핵심역량과 한국 교육과정 및 교수학습의 변화 방향<sup>1</sup>

김사훈 (한국의국어대학교)

## 1. 다양한 국가의 핵심역량 현황

학교 교육이 추구해야할 새로운 방향으로 역량이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창의력, 의사소통능력, 문제해결력 등과 같이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역량을 길러줄 수 있도록 학교 수업의 내용과 방법, 평가 방법 등이 바뀌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논의는 대체로 2000년대 초반부터 본격적으로 주목받기 시작했으며, OECD의 DeSeCo(the definition and selection of key competences) 보고서 이후 역량 개념은 다양한 연구들을 통해 많은 국가와 주의 교육과정에 반영되어 왔다. 비교적 짧은 기간동안 역량기반 교육과정이 많은 국가와 사회의 관심을 받게 된 이유는 삶의 변화 속도와 연계되어 있다.

실제로 DeSeco 보고서는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복잡성을 극복하기 위한 역량은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을 던진다. 호주 교육과정은 ‘학습자들이 21세기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 무엇이 필요한가’라는 질문의 답을 역량에서 찾고 있다. 캐나다 알버타 주는 ‘2030년을 살아갈 학습자들’의 역량 개발을 표명하며, 한국의 경우 2015년 개정된 국가 교육과정에 추구해야할 역량을 제시하며 각 교과를 통하여 역량을 함양할 것을 목표로 한다. 이러한 역량 개발을 위한 교육은 다양한 국가, 학자와 기관에서 연구되고 있지만, 공통적으로 학습자들이 지식을 선별하고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에 중점을 두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역량기반 교육과정 연구는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되어 왔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해외의 사례를 살펴보면, 역량기반 교육과정 연구는 각 국가에서 요구하는 역량을 선정 및 조직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다국적 연구 프로젝트인 ATC21S(Assessment and Teaching of Twenty-First Century Skills Project)는 21세기에 필요한 역량을 <표 1>과 같이 4대 영역과 10가지 하위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고 있다.

<표 1> ATC21S의 21세기 역량 내용 체계

사고의 방식 (Ways of Thin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창의력과 혁신능력</li><li>•비판적 사고력, 문제해결력, 의사결정능력</li><li>•학습하는 방법에 학습, 상위인지력</li></ul>
일의 방식 (Ways of Wor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의사소통능력</li><li>•협동능력</li></ul>
일의 도구 (Tools for Working)	<ul style="list-style-type: none"><li>•정보문해력</li><li>•정보통신기술능력</li></ul>

<sup>1</sup> 이 글은 김사훈의 출판 준비 중인 연구, “The Instructional Strategies of competency-based Curriculum: The Role of Teachers”, 2017 교과서 검정 기준 평가지표 개발 연구의 공청회 자료, 2015 개정 교육과정, 각국의 교육과정의 내용을 재구성하여 작성하였다.

세계속의 삶 (Living in the world)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지역 및 세계 시민의식</li> <li>•생애발달능력</li> <li>•개인과 사회적 책무성</li> </ul>
---------------------------------	--

또한 국가별로 제시된 역량을 살펴보면 뉴질랜드 국가 교육과정, 캐나다 퀘벡 주, 프랑스 국가 교육과정,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독일 브레멘 주의 역량은 다음 <표 2>와 같다.

<표 2> 주요 국가의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역량

국가 혹은 지역	역량
뉴질랜드 국가 교육과정	1 사고력 2 언어와 상징, 텍스트의 활용 3 자기관리 4 타인과 관계 맺기 5 참여와 공헌
캐나다 퀘벡 주	1 지적역량(정보활용력, 문제해결력, 비판적 판단력, 창의력) 2 방법론적 역량(효과적인 방법의 채택, ICT 활용력) 3 개인적·사회적 역량(자아 정체성 형성, 타인과의 협동) 4 의사소통 관련 역량(적절한 의사소통 능력)
프랑스 국가 교육과정	1 모국어 습득 2 외국어의 유창성 3 수학, 과학, 기술의 핵심요소 4 정보통신기술의 활용 5 문화적 교양 6 사회적·시민적 역량 7 자율성과 주도성
호주 뉴사우스웨일즈 주	1 정보를 수집·분석하고 조직하는 능력 2 정보와 아이디어를 교환하는 능력 3 활동을 계획하고 조직하는 능력 4 조직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함께 일하는 능력 5 문제해결력
독일 브레멘 주	1 개인적 역량 2 사회적 역량 3 방법적 역량 4 기초학습 활용 역량

요컨대, 역량기반 교육과정 연구는 국가별, 기관별로 역량을 선정하고, 범주화하여 그것을 언어로서 제시하는 것에 중점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역량과 관련된 교육과정의 변화 방향에 대한 연구는 다양한 국가에서 비교적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왔고, 현재 결과를 축적하여 체계화하고 있는 단계라고 볼 수 있다.

## 2. 한국의 핵심역량 교육과정 현황

그렇다면 우리나라(대한민국)의 교육과정에서는 핵심역량을 도입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가? 이에 대하여 우리나라는 2009 교육과정 개정에 역량이라는 용어를 처음 언급하였으며, 그 이후 2015 교육과정이 공표되기 까지 방대한 연구를 거쳐 핵심역량을 범주화하였다. 국가교육과정에 제시된 전 교과와 공통 핵심역량은 총 6개로서 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이 있다. 이는 각 교과에서 교과 고유의 성격을 고려하여 재해석되어 교과 역량으로 제시된다. 먼저 교육과정 총론에 제시된 교과 공통 역량은 다음과 같다.

<표 3>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핵심역량 (2015 교육과정 총론)

이 교육과정이 추구하는 인간상을 구현하기 위해 교과 교육을 포함한 학교 교육 전 과정을 통해 중점적으로 기르고자 하는 핵심역량은 다음과 같다.

가. 자아정체성과 자신감을 가지고 자신의 삶과 진로에 필요한 기초 능력과 자질을 갖추어 자기주도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 자기관리 역량

나. 문제를 합리적으로 해결하기 위하여 다양한 영역의 지식과 정보를 처리하고 활용할 수 있는 지식정보처리 역량

다. 폭넓은 기초 지식을 바탕으로 다양한 전문 분야의 지식, 기술, 경험을 융합적으로 활용하여 새로운 것을 창출하는 창의적 사고 역량

라. 인간에 대한 공감적 이해와 문화적 감수성을 바탕으로 삶의 의미와 가치를 발견하고 향유하는 심미적 감성 역량

마. 다양한 상황에서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효과적으로 표현하고 다른 사람의 의견을 경청하며 존중하는 의사소통 역량

바. 지역·국가·세계 공동체의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가치와 태도를 가지고 공동체 발전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 역량

그렇다면 총론에서 제시된 역량을 교과에서는 어떻게 구현하고 있는가? 예시적으로 교과 역량을 살펴보기 위하여 공통과학에서 제시된 교과 역량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4> 국가 교육과정 문서에 제시되어 있는 핵심역량 (2015 교육과정 각론 중 과학, 사회)

‘과학’에서는 다양한 탐구 중심의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 또한 기본 개념의 통합적인 이해 및 탐구 경험을 통하여 과학적 사고력, 과학적 탐구 능력, 과학적 문제 해결력, 과학적 의사소통 능력, 과학적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 등의 과학과 핵심역량을 함양하도록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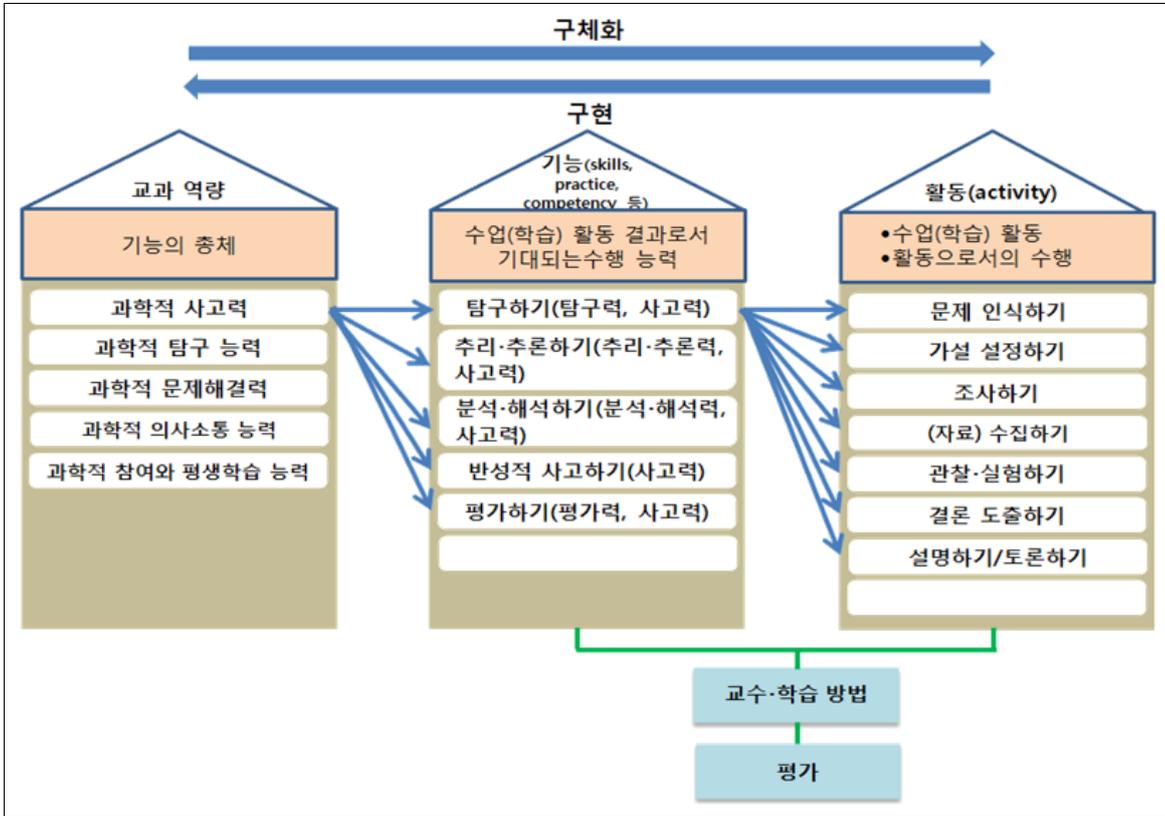
사회과는 민주 시민으로서 갖추어야 할 자질을 함양하는 데 필요한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등의 교과 역량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창의적 사고력은 새롭고 가치 있는 아이디어를 생성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비판적 사고력은 사태를 분석적으로 평가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은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합리적으로 결정하는 능력을 의미하며,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은 자신의 견해를 분명하게 표현하고 타인과 효과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능력을 의미한다. 또한 정보 활용 능력은 다양한 자료와 테크놀로지를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 해석, 활용, 창조할 수 있는 능력을 의미한다.

교과에서는 총론에서 제시된 6개의 역량(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을 선택 및 변형하여 역량 함양을 보다 구체화한다. 과학에서는 사고력, 탐구 능력, 문제 해결력, 의사소통 능력, 참여와 평생 학습 능력을 집중적으로 함양하기 위하여 노력하며 사회과에서는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 등의 교과 역량을 육성하는 데 중점을 둔다.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은 교육과정 문서(교과서 포함)에 역량을 선언적으로 제시하였다고 실제적으로 교실환경에서

변화를 수반할 수 없다는 것이다. 교육목적과 추구하는 인간상이 훌륭하게 제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구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장치가 없을 때, 이는 교실현장에서 쉽게 잊히기 마련이다. 이에 국가교육과정에서는 이례적으로 2015 개정시, 교실에서 학생들의 수행을 유도할 수 있는 “기능”을 제시하게 된다. 이에 대한 설명은 아래를 보는 것이 좋다.

<표 5> 국가 교육과정 문서의 역량과 구현방안 (2015 교육과정 과학과, 사회과)



영역	핵심 개념	일반화된 지식	내용 요소			기능
			초등학교		중학교	
			3-4학년	5-6학년	1-3학년	
경제	경제생활과 선택	희소성으로 인해 경제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비용과 편익을 고려해야 한다.	희소성, 생산, 소비, 시장	가계, 기업, 합리적 선택	희소성, 경제 체제, 기업의 역할, 자산 관리, 신용 관리	조사하기 분석하기 추론하기 적용하기 탐구하기 의사 결정하기
	시장과 자원 배분	경쟁 시장에서는 시장 균형을 통해 자원 배분의 효율성이 이루어지고, 시장 실패에 대해서는 정부가 개입한다.		자유경쟁, 경제 정의	시장, 수요 법칙, 공급 법칙, 시장 가격	
	국가 경제	경기 변동 과정에서 실업과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며, 국가는 경제 안정화 방안을 모색한다.		경제 성장, 경제 안정	국내 총생산, 물가 상승, 실업	
	세계 경제	국가 간 비교 우위에 따른 특화와 교역이 발생하며, 외환 시장에서 환율이 결정된다.		국가 간 경쟁, 상호 의존성	국제 거래, 환율	

사회과에서는 핵심역량을 함양시키기 위하여 내용요소 개념(예컨대, 희소성, 생산, 소비, 시장)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어떻게” 수업에 구현해야 할 것인지에 대해 “기능”으로서 제시하고 있다. 내용과 기능을 조합하면 수업에서 구현할 활동이 도출되게 된다.

즉 초등학교 5학년에서는 희소성으로 인해 경제 문제가 발생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가계와 기업의 합리적인 선택에 대한 예시를 조사하며, 분석하고 이를 실제 생활에서 적용하는 것이 수업의 내용과 활동이 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성취기준에서 구체화된다. 사회과에서 예시와 관련한 성취기준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6> 2015 교육과정 사회과 성취기준 예시

**<필요한 것의 생산과 교환>**

[4사04-03]자원의 희소성으로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파악하고,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생산, 소비 등 경제활동을 설명한다.

[4사04-04]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물자 교환 및 교류 사례를 조사하여, 지역 간 경제활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탐구한다.

(가) 학습 요소

- ⑩ 자원의 희소성,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 시장, 생산, 소비, 지역 간 물자 교환 및 교류

(나) 성취기준 해설

⑩ 이 단원은 ‘생산과 소비’와 같은 기본적인 경제활동의 의미를 이해하고, 인간의 욕구를 충족할 수 있는 자원이 희소하여 경제활동에서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파악하며,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 사람들의 물자 교환 및 교류 사례를 통하여 지역 간 경제활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탐색하는 데 주안점을 둔다.

⑩ [4사04-03]에서는 자원의 희소성으로 일상생활에서 경제적 선택의 문제가 발생함을 파악하고, 생산 및 소비와 같은 경제활동의 의미를 시장을 중심으로 이해하도록 한다.

⑩ [4사04-04]에서는 [4사04-03]의 시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경제활동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우리 지역과 관련된 다른 지역의 물자 교환 및 교류 사례를 통하여 지역 간 경제활동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파악하도록 한다.

(다)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 사항

- ⑩ 시장(전통시장, 상설시장, 백화점, 할인 매장 등)에 관한 역할 놀이나 모의 활동을 통해 학생

들이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생산과 소비 활동의 의미를 파악하고, 자원의 희소성 때문에 경제활동을 할 때 선택의 문제가 발생하게 됨을 이해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⑩ 다양한 경제활동(도매, 경매 등) 장면을 설정하여 역할 놀이나 모의 활동을 할 때 필요한 대본을 작성하거나 장보기 목록, 모의 화폐 등을 사용할 수 있다.

⑩ 시장에서 거래되는 여러 가지 물건의 생산지를 조사하여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이 물자를 교류하고 경제적으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파악할 수 있도록 지도한다.

⑩ 우리 지역과 다른 지역의 물자 교환 및 교류 사례를 개인별 또는 모둠별로 조사하여 발표하고, 지역 간 경제 교류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 토의하도록 한다.

이 예시에서 알 수 있듯이 총론(전 교과)에서 제시된 핵심역량(자기관리 역량, 지식정보처리 역량, 창의적 사고 역량, 심미적 감성 역량, 의사소통 역량, 공동체 역량) 중 사회과는 핵심역량으로서 창의적 사고력, 비판적 사고력, 문제 해결력 및 의사 결정력, 의사소통 및 협업 능력, 정보 활용 능력을 제시하였고, 이를 구현하기 위하여 내용체계표상에 내용과 더불어 기능을 추가하였다.

내용과 기능을 조합하면 다양한 활동을 구현할 수 있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진술해 놓은 것은 성취기준이 된다. 각각의 성취기준은 내용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어떠한 활동을 할 수 있는가를 짐작할 수 있도록 진술되어 있으며 이는 교수학습 방법 및 유의사항을 통해 더욱 구체화되어 교실에서 구현될 수 있도록 한다.

참고로, 교육과정에 구현된 역량을 교과서에 구현하기 위한 노력은 현재 연구 시작단계에 있다. 각 교과별 교육과정 문서를 학교 실체에 적용하기 위한 사례 중심의 성취기준 및 성취수준의 사례를 개발하는 연구가 교육부에서 성한되어 시작단계에 있다(이는 7차, 2007, 2009에도 시행된 적이 있음). 이는 학교에서 국가문서를 구체적으로 재구성(적용)할 수 있는 사례를 국가적으로 제시해주는 의미가 있다. 특히 이번 연구의 관점은 학교 수준의 성취기준과 성취수준에서 핵심역량이 조금 더 구체적이고 명확히 드러내기 위해서 교수학습 방법, 평가 방법 등을 구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교과서는 제작 중에 있는데, 초등학교의 경우, 1~2학년(국정)은 2016 개발 심의 완료, 2017년 적용, 3~4학년(검정), 중1, 고1은 2017년 개발 심의 완료, 2018년 적용, 5~6학년, 중2, 고2는 2018년 개발 심의 완료, 2019년 적용, 중3, 고3은 2019년 개발, 2020년 적용을 목표로 하고 있다. 교과서의 개발 방향은 핵심역량을 교육과정을 효과적으로 구현하여 핵심역량을 구체적으로 드러내고자 노력하는 것이다.

### 3. 핵심역량 실천의 과제: 교수학습(수업)의 변화와 실천

아무리 혁신적인 교육과정이라고 하더라도 그것이 문서상의 변화를 넘어 실제 학교 현장의 변화로 이어지지 못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다. 즉, 역량을 어떻게 교육과정에 담아내느냐도 중요하지만 동시에 그것을 어떤 교수·학습방법과 전략을 통해서 구현할 것인가도 중요한 고려사항이라는 것이다(홍원표·이근호, 2010). 이 말은 곧 역량 교육과정은 비단 교육과정 차원에서만 논의될 것이 아니라 교수·학습 과정과 연계된 종합적 조망 속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시

사한다.

역량을 실천하기 위한 교수·학습 연구는 제시된 역량을 달성하기 위한 전략적 측면의 방안이 연구되고 제시되어 왔다. 이는 크게 협동학습, 문제중심학습, 탐구학습, 프로젝트 학습법 등으로 규명될 수 있는 연계 융합 교수·학습 모형의 전략으로 귀결된다. 역량기반 교수·학습은 국가 수준에서 획일적으로 규정할 수 있는 것이라기보다 교사 수준에서 상황에 따라 다르게 운영되기 때문이다. 교수·학습 방법은 이러한 단위 학습의 교육과정 재구성 정도를 고려하여 융통성 있게 적용할 수 있어야 한다. 즉, 미래 역량기반 교수·학습 연구는 교사의 역할에 중점을 두어 아래와 같은 구현 방안의 best practice 사례를 탐색할 필요가 있다.

### (1) 연계 융합 교사 단위의 교육과정 재구성

핵심역량 성취를 위하여 먼저 활용되고 있는 방법은 연계 융합수업을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한국에서는 교사의 교육과정 재구성 능력을 매우 강조하는 추세에 있다(이 방법은 다음 항목에서 자세히 다룬다). 하지만 과도한 업무의 교사에게 교육과정 재구성을 모두 책임지라하기에는 현실적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서에는 교과 연계 내용을 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역시 매우 시작단계에 있기 때문에 교과서 제작의 단계가 아닌 연구의 단계에 있음을 미리 밝히는 바이다. 여기서는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기존의 교과서 연계 사례로 활용되는 것을 보여주고자 한다.

<표 7>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사회과 융·복합 관련 검정기준

과목	학교급	심사 영역	심사 항목
사회	중학교	II. 내용의 선정 및 조직	11.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실생활과 관련된 참신한 소재 및 융·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통합적인 재료를 적절히 활용하였는가?
		IV. 교수·학습 방법 및 평가	18. 융·복합적 사고 및 교과 지식을 적용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다양한 교수·학습 방법과 평가를 제시하였는가?
통합 사회	고등학교	II. 내용의 선정 및 조직	11.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발할 수 있는 실생활과 관련된 참신한 소재 및 융·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통합적인 재료를 적절히 활용하였는가?

이와 같이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별 교과서의 심사 항목은 융복합적 사고를 촉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른 교과서 개발이 시행될 것이라 예상되는데, 유사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 금연 구역에서의 흡연 현상에 대한 다양한 학문적 관점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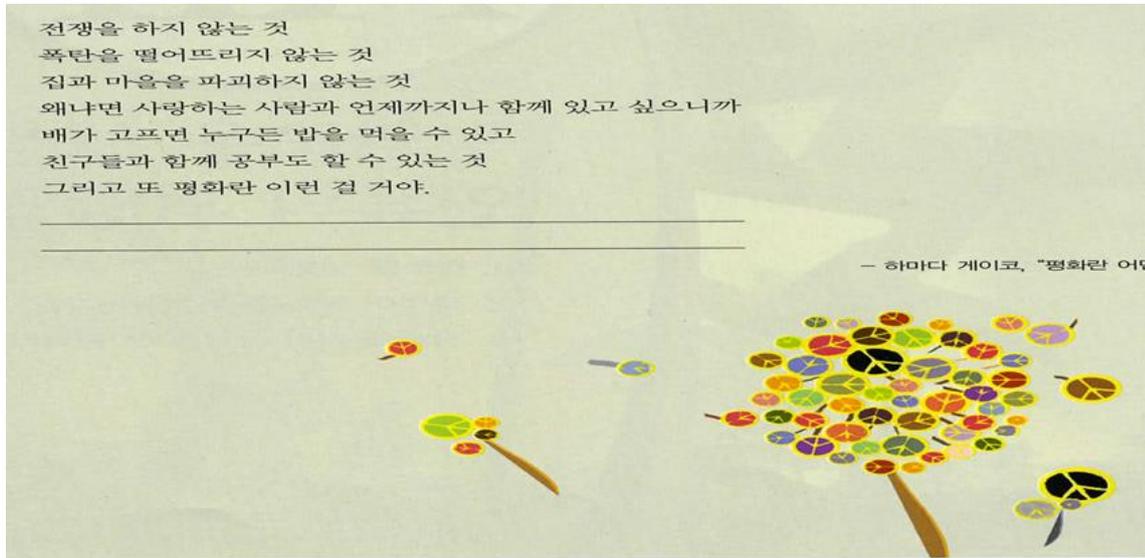
아래 그림은 금연 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현상에 대해 사회 과학자들이 자신들이 연구하는 학문적 개념을 활용하여 그 원인을 분석하는 모습이다.



생각 더하기 금연 구역 내에서 담배를 피우는 현상을 개별 학문에서 접근해야 할까, 간학문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할까?

전쟁을 하지 않는 것  
 폭탄을 떨어뜨리지 않는 것  
 집과 마을을 파괴하지 않는 것  
 왜냐면 사랑하는 사람과 언제까지나 함께 있고 싶으니까  
 배가 고프면 누구든 밥을 먹을 수 있고  
 친구들과 함께 공부도 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또 평화란 이런 걸 거야.

- 하마다 게이코, "평화란 어떤 것인가"



이 글 뒤에 이어질 내용을 상상하여 써 보자.

유럽의 산업화를 바라보는 두 개의 시선

산업화가 낳은 문명 예찬



클로드 모네, "아르장티유의 철도교"(1873년)

푸른 강에 하얀 돛단배들이 한가롭게 떠 있고, 그 위로는 철교가 서 있다. 기차가 지나가며 뿜어내는 흰 연기가 하늘의 구름과 뒤섞인다. 산업화의 산물인 기차가 개통되자 대도시와 교외 지역이 1시간 이내에 연결되었다. 덕분에 파리의 화가들도 쉽게 교외로 나가 그림을 그리고 여유를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이 그림은 산업화 시기에 빠르게 발달하는 문명에 대한 예찬을 담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산업화로 인해 지친 일상과 피로감 묘사



조르주 쇠라, "그랑자트 섬의 일요일"(1884~1886년)

일요일 오후 파리의 시민이 섬에 나와 쉬고 있다. 파리에는 빠르게 진행되는 산업화로 '주말'이라는 개념이 등장하였고, 공장 노동자들이 쉴 수 있는 날로 쓰이기 시작했다. 이 그림의 등장인물은 귀족층이 아니라 일주일에 하루 쉴 수 있게 된 평범한 서민이자 노동자들이 대부분이다. 이 그림은 그들의 무표정하고 생동감 없어 보이는 모습을 통해 산업화 시기의 피로감을 묘사하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 교과서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교과서 제작 단계에서 학생의 활동을 교과 내/ 교과 간 연계를 통하여 창의적 활동을 장려하는 것을 알 수 있다.

(2) 역량과 교과 내용을 연계한 교사 단위의 교육과정 재구성

교사가 역량기반 수업을 계획할 때,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것은 역량을 반영한 교사 단위의 교육과정 재구성 가능성과 그 정도의 깊이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는 교과별로, 대상 학생 연령별로, 혹은 수업 단원별로 매우 상이할 수 있다. 가령 다양한 교과를 한 사람의 교사가 담당하는 초등학교의 경우, 교사가 다양한 교과 교육과정을 역량 교육과정으로 통합하여 수업을 설계하기에 용이하다. 반면 교과 교사의 역할 경계가 비교적 분절적인 중학교의 경우, 담당 교과를 중심으로 다른 주제 혹은 타교과의 활동을 도입하여 교과지식과 역량 계발의 균형점을 찾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다음 그림은 초등학교 A교사가 역량기반 수업을 위하여 교육과정을 주제 중심형으로 재구성하여 계획한 것을 도식화한 것이다.



C교사는 체육수업에서 학생들의 신체적 역량과 함께 학생들의 문제해결력 및 사회적 협업 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고민하였다. 특히 이어달리기의 경우 상대적으로 뒤처지는 학생들에게도 자신이 속한 조에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을 찾을 수 있도록 계획하는 것이 중요하였다.



이에 C교사는 이어달리기의 순서를 직접 정해주기보다는, 학생들 4명을 1조로 구성하여 각 조 별로 가장 빨리 달릴 수 있는 조합을 학생들이 스스로 구성할 수 있도록 수업을 설계하였다.

모둠의 구성원들은 개인기록을 바탕으로, 누가 가장 먼저 혹은 마지막에 뛰어야 하며, 누가 가장 긴 거리 혹은 짧은 거리를 뛰어야 하는지에 대하여 논의를 하고 조합을 완성해서 직접 달려보도록 하였다. 교사는 가장 빠르게 달리는 방법뿐만이 아니라 조의 구성에 따라 기록이 가장 많이 단축되는 것을 중심으로 수업을 설계하였다. 이에 학생들은 이어달리기에서 기록을 단축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서로 논의하였다. 또한 학생들은 다른 조의 이어달리기 방식에도 관심을 가지고 서로 격려와 응원을 하기도 하였다.